



## ‘변변한 시대, 한 줌의 정치’ 이진경 지음

작정했나보다. 철학자의 쓴소리치고는 상당히 많다. 여러 차례 읽어오 머릿속에 서만 맴맴 도는 어려운 철학적 수식어로 덧칠해진 것도 아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이슈를 놓고 조곤조곤 씌어댄다. 때론, 날카로운 유머로, 어쩔 땐 ‘개무시’나 ‘생까소’ 등의 비속어까지 써가며 신랄하게 독설을 쏟아놓는다.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부”라던 현 정권 주요 관리들이 졸졸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는데 하면, 경기 침체의 불황은 어둡고 길기만 해 팍팍한 삶은 가시 줄 모른다. 처음엔 숨기고 거짓을 말했다가 나중에 고개 숙이며 사죄하는, 참 변변하면서 답답한 현실. 그러한 세태를 꼬집는 비평, 확확 책장 내 유명세를 탔던 저자다. 정치와 연관이 없어 보일 듯한 철학자가 돌연 사회 현안에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거침없다.

현 정권과 정책을 겨냥한 직설 화법의 직언(直言)은 신랄하다. “변변한 시대, 한 줌의 정치”는 급진적 이론과 실천의 방법론을 소개해 ‘탈주의 철학자’로 불려온 이진경이 쓴 시사정치 평론집이다. 1980년대 이른바 좌파 학생들 사이에 ‘사사방’이라는 줄임말로 유명했던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 방법론’이란 책을 내 유명세를 탔던 저자다. 정치와 연관이 없어 보일 듯한 철학자가 돌연 사회 현안에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거침없다.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부”라던 현 정권 주요 관리들이 졸졸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는데 하면, 경기 침체의 불황은 어둡고 길기만 해 팍팍한 삶은 가시 줄 모른다. 처음엔 숨기고 거짓을 말했다가 나중에 고개 숙이며 사죄하는, 참 변변하면서 답답한 현실. 그러한 세태를 꼬집는 비평, 확확 책장 내 유명세를 탔던 저자다. 정치와 연관이 없어 보일 듯한 철학자가 돌연 사회 현안에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거침없다.

럽 남들이 ‘비리’라고 부르는 악행에 대해서조차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매일 하던 일인데 공연히 트집 잡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 그가 자신의 정부를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정부”라고 한 말은 그가 자신의 악행이 악행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식으로 강도높다.

논리 정연한 정치 비판이 독자들에게 꽤감을 선사한다면 관련자들은 아파서 숨이 턱턱 막힐 법도 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알바 시간 빈 시간에 대학을 다녀도 재우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됐지만 졸업해도 3분의 1은 취직을 할 수 없는 현실. 노동하는 인구 반 이상이 비정규직 고달픈 삶에 시달리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가 됐어도 정치인의 관심거리도 되지 못하는 세상. 물가인상의 비상벨이 몇 년째 울리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어쩔 수 없으니 소비를 줄이라”라는 걸 물가대책이라고 말하는 나라. 여기 어디에서 푸코가 말한 ‘통치’를 발견할 수 있겠냐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우리 업적을 너무 자랑하지 말라”며 집권 3주년을 맞아 비서진을 모아 놓고 했다는 말을 들어 ‘개그정권’이라며 꼬집기도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나는 안철수 같은 ‘아마추어’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안철수가 경영자나 기업가가 아니라 ‘과학자’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 “박근혜 같은 이가 아니라 안철수 같은 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제목처럼 직설적이면서 도발적인 내용이 가득하다.

저자는 일련의 내용을 들려 현 시대를 ‘변변한 시대’로 규정하고 “단단한 시대의 막힘을 풀기 위해



서는 소소하고 미천해 보이는, ‘한 줌 안되는 것’들의 힘으로 문제를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문학동네·1만35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또래압력 긍정적 활용이 세상을 치유한다

### ‘또래 압력은 어떻게...’ 티나 로젠버그 지음

‘발칸의 도살자’로 불리는 세르비아의 독재자 밀로 세비치를 실각시킨 민주화 운동 ‘오토포르’(otpor-저항)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50%를 넘던 10대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률을 10%대로 낮춘 캠페인 등.

폴리처상 수상 작가인 티나 로젠버그는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한 원인으로 ‘또래 압력(peer pressure)’을 꼽았다.

“또래 압력”은 또래(동료) 집단의 사회적 압력을 말하는 것으로, 저자는 전 지구적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지목한다. 그만큼 ‘또래 압력’은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는가는 저자가 발로 뛰며 동료 집단의 숨은



힘을 찾아다니는 흔적이 생생하다. 남아공 에이즈를 퇴치하면서 10대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 캠페인 ‘러브라이프’를 대대적으로 벌여 무기에 빠진 남아공 청소년에게 긍정적 소속감을 부여했다는 분석은 눈길을 끈다.

저자는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치유책’이 효과를 거두는 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또래 집단의 결속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아울러 청소년 금연 캠페인, 소수민족의 수확성적 향상, 인도의료복지 개선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또래 압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RHK·2만2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우리 곁에 실존한 아름다운 사람들 이야기

### ‘내가 사랑한 여자’ 공선옥·김미월 지음

소설가 공선옥과 김미월이 산문집 ‘내가 사랑한 여자’를 펴냈다.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글을 쓴 공선옥이 독자들에게 함께 이야기 하기를 청한 인물의 면면을 보자.

‘터질 듯이 노란 소문난 여자’ 가수 김추자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자기 식대로 소화해 자기 식대로 발산한 가수’였다.

시인 김수영의 ‘여편네’ 김현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자 중 한명이었던 오리아나 팔라치, 세상의 가벼운 호기심 앞에서 언제나 의연했던 다니엘 미테랑, 소설가 강경애, 케테 콜비츠, 프리다 칼로,



나혜석, 한나 아렌트도 저자의 안내를 받으며 만날 수 있다. ‘정원에서 길을 묻다’로 세계

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후 ‘서울특별시 가이드’로 평단의 인정을 받은 김미월이 만난 12명의 면면은 어떤가.

시인 백석의 연인으로 ‘나와 나타샤와 흰 담나귀’ 속 주인공인 김영희, 혁명의 아이콘 로자 룩셈부르크, 진정성이 담긴 노래를 불렀던 에디트 피아프, 제인 구달과 레이철 카슨, 타사 튜터 등이 그녀가 ‘사랑한 여인’이다. <유유·1만3000원>

/김미월기자 mekim@kwangju.co.kr

## 영화 속 인물을 통해 본 인간 본연의 모습

### ‘뇌과학자는 영화에서...’ 정재승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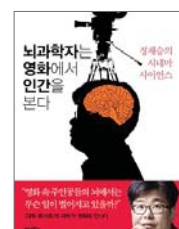
정재승의 책 ‘과학 콘서트’는 딱딱하게만 생각했던 과학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놓는 역할을 했다.

신작 ‘정재승의 시네마 사이언스-뇌과학자는 영화에서 인간을 본다’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을 통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뇌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다.

‘다크 나이트’ 시리즈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인셉션’을 보면서 다들 궁금증이 생겼을 것이다.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꿈을 임의로 만들어서 꿀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같은 꿈을 꾸는 게 가능할까.

저자는 ‘꿈은 조작할 수 있는가’라는 쪽지를 통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폐증 환자의 이야기를 그린 ‘레인맨’, 이유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폭력성은 타고난 것인지 질문을 던지는 ‘주요소 습격 사건’ 등도 뇌과학을 이야기하는 좋은 소재다.

그밖에 ‘마이내리티 리포트’, ‘메멘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등을 통해 강박증, 결박증, 기억상실증 등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2부에서 다루고 있는 ‘톨과 제리’, ‘에일리언’, ‘가타카’ 등 17편의 이야기는 외도에 대한 집착과 늑교 병들지 않으려는 욕심 등 생명공학과 뇌가 인간의 욕망에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 흥미롭게 보여준다.

다만, 2002년 퍼낸 전작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에 실린 글들을 가져온 것이어서 새 글을 기다린 독자들에게는 아쉬움을 준다. <에르코스·1만4000원>

/김미월기자 mekim@kwangju.co.kr

## 북극 괴짜들이 펼치는 유쾌한 일상

### ‘북극의 허풍담 1~3’ 요른 릴 지음

북극에 사는 괴짜 상냥꾼들의 일상을 유머러스하게 써내려간 연작 콩트집 ‘북극의 허풍담’(전 3권)이 나왔다.

덴마크의 국민작가 요른 릴의 대표작으로 ‘차가운 처녀’, ‘북극의 사파리’, ‘피오르르드의 은밀한 열정’ 등 세 권으로 묶여 나왔다.

작품의 주인공은 사냥회사에서 파견나온 직원들로 자신해서 문명을 등



어쩌다 한번 북극을 찾는 외국인, 북극에 사는 흰곰 등 동물과 벌이는 에피소드들이 유쾌하게 펼쳐진다. 2010년 덴마크 학술원 대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열린책들·각권 9800원> /김미월기자 mekim@kwangju.co.kr

## 애써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되는...

### ‘지지 않는다는 말’ 김연수 지음

“지지 않는다는 말이 반드시 이긴다는 걸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문난 달리기광인 소설가 김연수 씨가 달리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이 인생을 바꿀 정도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그러면서 ‘애써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얘기한다.

산문집 ‘지지 않는다는 말’은 저자



저자는 달리고 있어서 달리는 일은 ‘달리기’이고 다른 사람의 강요로 억지로 달리는 일은 ‘후달리기’라고 표현하는 등 저자의 세계에 영향을 준 달리기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마음의 숲·1만2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신간

▲행복의 총격=문학평론가 겸 번역가, 불문학자인 김화영씨가 1969년 29살의 나이에 처음 떠난 지중해에서의 경험을 담아 1975년 펴냈던 산문집을 새롭게 출간했다. 개정판 서문에서 저자는 “열을 뒤흔 나는 다시 프로방스로 떠난다. 그곳에서는 아직도, 행복은 습관이 아니라 총격이다. 행복은 이 땅위에 태어난 우리의 하나뿐인 의무”라고 썼다. <문학동네·1만1000원>

▲곤충이 말하는 범죄의 구성=영국 린컨대 법과학 교수인 도로서 제너스가 법곤충학의 역사와 범위, 실제 수사 사례를 담아 출간한 ‘곤충 수사’ 소개서다. 법곤충학이란 곤충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범죄 사건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법과학의 한 분야. 저자는 도표와 사진을 곁들여 과학적인 곤충 수사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글로세움·1만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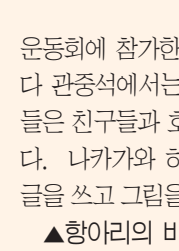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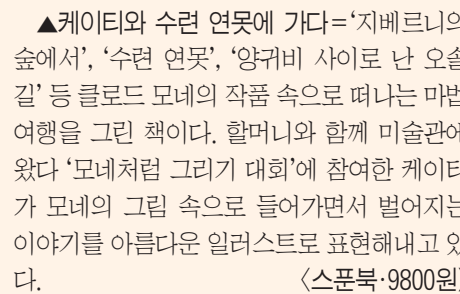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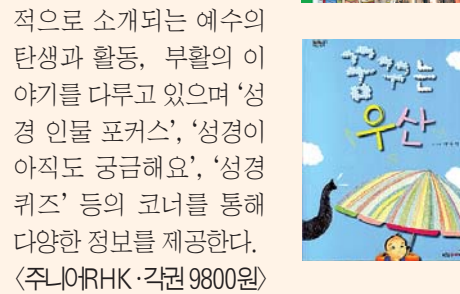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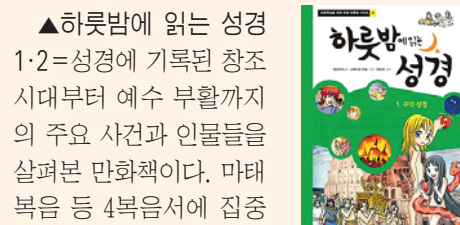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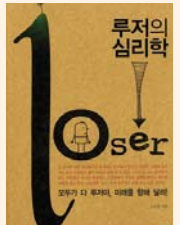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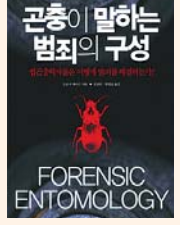
▲왕의 서재=국회도서관 조사관인 소준섭 씨가 옛 왕들은 어떻게 학습과 독서를 수행했는지, 어떻게 나라를 경영했는가를 비롯해 제왕학과 제왕들의 학습 제도인 경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경연 제도가 가장 체계적으로 작동한 조선에서의 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제왕학에 사용됐던 각종 교재들에 대한 해설도 곁들였다. 세종과 정조에 대한 학습 장면을 정리하면서 두 왕의 삶의 깊이를 살펴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어젠다·1만4900원>



▲과학과 메타과학=장희의 서울대 명예교수가 1990년 출간한 책의 개정판. 논문 모음집에 가까웠던 1990년에 비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3분의 1가량을 새로 썼다. 저자는 ‘과학과 메타과학’을 통해 우주와 물질, 생명을 둘러싼 전문적 과학 이론을 깊이있게 들여다보면서 과학자로서 과학에 대한 태도, 인문학자로 인간과 학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현암사·2만원>

▲백남준을 말한다=7월 20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1932~2006) 탄생 80년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로, 그와 인연을 맺은 국내 각계 인사 10명이 그를 추억하며 펴낸 책. 국내에서 백남준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작가 김수경, 백남준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가야금 명인 황병기, 1988년 이후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기술을 담당한 이정성 아트마스터 등 지인 10명이 백남준에 대한 기억을 기록했다. <해피스토리·2만원>

▲루저의 심리학=외모루저, 실업루저, 가족루저, 연애루저 등 이 시대 청춘이 겪는 좌절 사례를 상황별로 구분해 각각의 문제점을 분석, 진단한다. 철학 이론을 쉽게 풀어써 온 저자 신승철이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와 심리치료사 켈리스 가바리의 이론을 토대로 ‘사회적 패배자’를 뜻하는 ‘루저’(loser)의 심리를 분석하고 따뜻한 위로로 전한다. <섬인·1만3000원>



▲하룻밤에 읽는 성경 1-2=성경에 기록된 창조 시대부터 예수 부활까지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살펴본 만화책이다. 마태복음 등 4복음서에 집중적으로 소개되는 예수의 탄생과 활동, 부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인물 포커스’, ‘성경이 아직도 궁금해요’, ‘성경 퀴즈’ 등의 코너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니어RHK·각권 9800원>

▲꿈꾸는 우산=꿈을 이루어주는 마법 우산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으로 장운경씨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엄마 아빠를 기다리며 텔레비

전만 보던 두립이는 어느 날 알록달록 커다란 우산을 발견한다. 우산과 함께 산으로, 바다로 신나는 여행을 떠난 두립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푸른숲주니어·1만1000원>

▲준비 당!=즐거운 운동회날의 현장감을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 익살 넘치는 그림으로 표현해낸 책이다. 자기 키보다 높은 필름, 마구 엉켜있는 그물.

운동회에 참가한 아이들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합창 응원이 들려오고, 아이들은 친구들과 호흡을 맞춰 결승선으로 달려간다. 나카가와 히토타카, 무라카미 야스나리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아이세움·9500원>

▲황하리의 비밀=다문화 가족 어린이들과 한국 어린이들이 함께 읽는 한국 문화 그림책이다. 일본의 사육리, 폴로비아의 안젤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브로니 등 ‘미녀들의 수다’ 출연진 10명이 기획자로 참여, 외국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한국문화 이야기를 친근하게 들려준다. <이람·1만원>

## 어린이 책꽂이